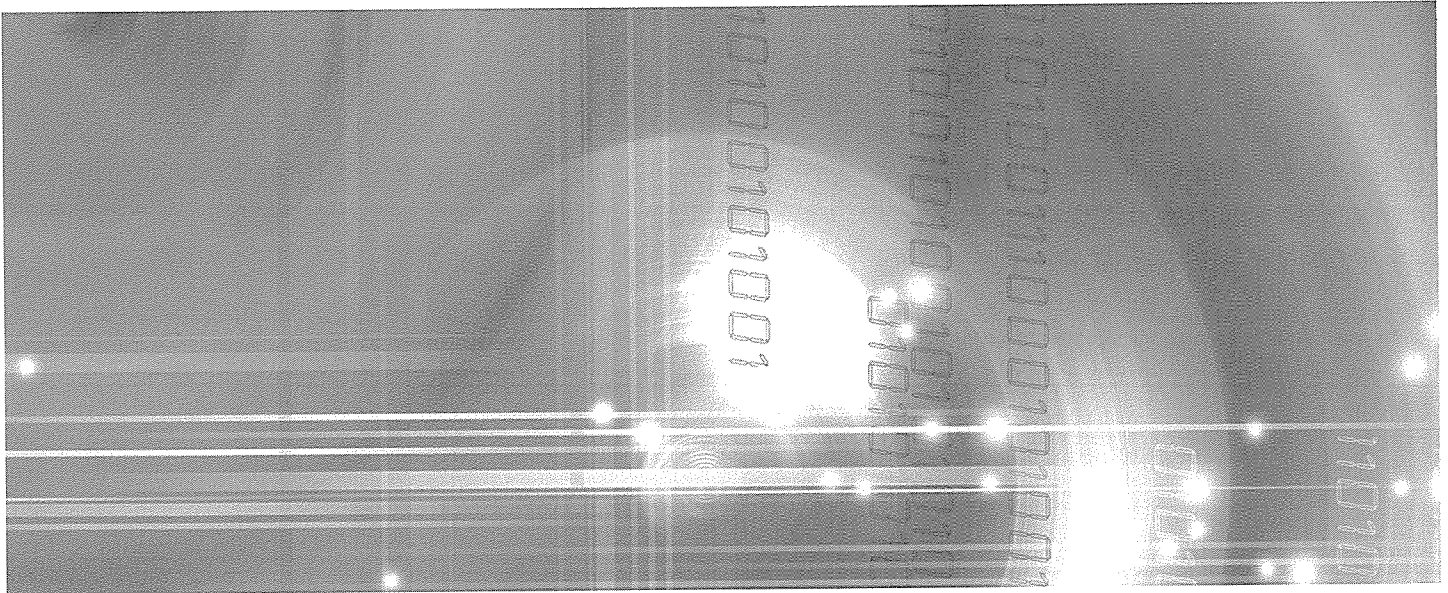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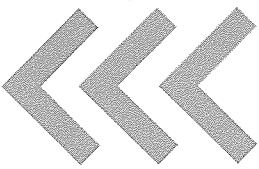


「 광학과 첨단영상이미징 기술의 ‘가교역할’ 」 및 고부가가치 응용기기 개발에서 ‘두각’ 」



컴퓨터이미징기술 전문업체 (주)이즈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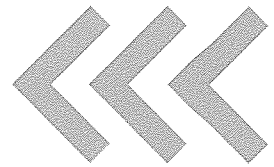
(주)이즈미디어(대표·홍성철)는 컴퓨터이미징과 머신비전 소프트웨어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카메라폰과 관련한 렌즈모듈 검사장비를 주력으로 선보이며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평가하는 기술까지 고루 갖추고 있는 이즈미디어는 첨단IT와 광학을 잇는 가교역할은 물론 다양한 고부가가치 응용광학계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카메라폰의 폭발적인 성장은 카메라폰용 렌즈모듈 시장은 물론 관련 생산설비 및 검사장비의 동반 성장을 불러왔다. 우리나라는 연 1억 개 이상의 카메라폰을 생산하고 있는데 고해상도 카메라 렌즈 및 모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서는 설계와 제작기술뿐만 아니라 성능평가 기술도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시장에서 2메가급 이상 제품들이 점차 주종을 이루면서 최근 카메라렌즈 검사공정에서 필요한 자동화설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즈미디어의 홍성철 사장



(주)이즈미디어는 컴퓨터이미징이라는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2002년 11월 설립과 동시에 카메라 폰용 렌즈모듈 검사장비 시장에 출시표를 던졌다. 원래 회사명은 'It is multimedia' 인데 여기에서 'It multi'가 빠져 'is media(이즈미디어)'가 됐다. 상호에서 알 수 있듯이 컴퓨터이미징이라는 기반 기술을 통해 전 산업, 문화, 생활공간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제품의 핵심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선도업체가 되겠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이즈미디어의 경쟁력은 핵심 기술력인 Digital Imaging 기반기술, Machine Vision S/W, 영상 이미지 분석처리, Micro Controller 응용제품, ASIC Design 기술을 모태로 하여 뿔어져 나온다. 현재는 주력 사업 분야지만 원래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는 이 회사의 사업분야중 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컴퓨터에 눈을 달아주는 역할'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용도의 카메라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평가하는 기술까지 고루 갖추고 있어 이 회사의 활동영역은 멀티미디어의 의미처럼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카 메 라 제 작 부 터 평 가 기 술 까 지
핵심 기술 구축**

이즈미디어에서는 주력제품인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에서부터 다양한 산업용카메라 및 카메라 모듈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Focus와 Image 검사를 수동 조작으로 하는 Manual 검사장비, 반자동 형태인 Semi-Auto 검사 장비, Full-Auto 장비 등을 자체 생산 납품하고 있으며, 렌즈의 Focus 및 Distortion, Defect & Dust 검사를 중점적으로 운용하는 별도의 렌즈 검사장비도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USB Board를 이용한 검사 솔루션을 개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2메가 센서를 탑재한 USB용 고해상도 카메라 모듈 개발에 성공하여 역시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 직원 12명중 9명이 엔지니어일 정도로 연구소 중심의 이 회사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개발제품들을 꾸준히 선보이며 시장에서 입지

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광학, 전자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공자들로 구성된 엔지니어들을 주축으로 중추적인 평가기술만을 주로 담당해온 이 업체의 신념은 확고하다. 이윤 창출이라는 기업의 고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 기업처럼 수익성과 연결된 양산품 제작이나 회사의 덩치가 커지면서 당연히 생각하는 사업영역의 확장을 꿈꾸기 보다는, 이미 기반기술로 갖고 있는 컴퓨터이미징 기술 분야의 핵심역량을 키워 오로지 이 분야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글로벌 R&D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 시장에 이미 기술력 있는 업체로 입소문을 타고 다양한 기기전문업체로부터 기술협력 제안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최근에는 광학렌즈 모듈업체와 AF렌즈 평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데 소프트웨어와 전자적인 부분을 이즈미디어에서 맡았다.

**기 반 기 술 통 한 응 용 분 야 는
'Multi-'**

설립초기부터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화가는 기술 및 시장상황에 맞춰 끊임없이 개발품을 시장에 선보인 이즈미디어는 쏟아지는 개발의뢰를 다 소화하기 힘들 정도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 회사의 조기형 이사는 "설립초기부터 회사차원의 영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영업형태를 가져왔으나, 앞으로는 주력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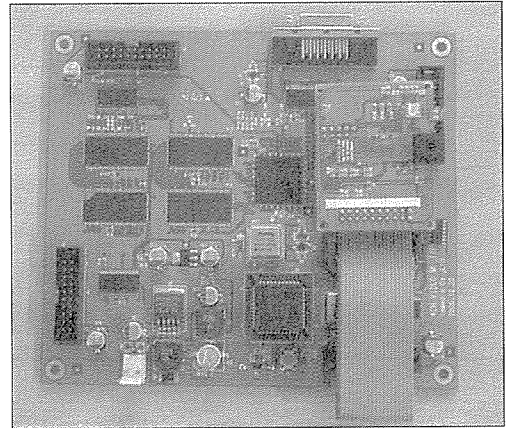
▶홍성철 사장과 연구원들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극적으로 영업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설립이후 2년간은 R&D에만 집중해 온 결과 2005년 3/4분기부터 급속하게 매출이 일어나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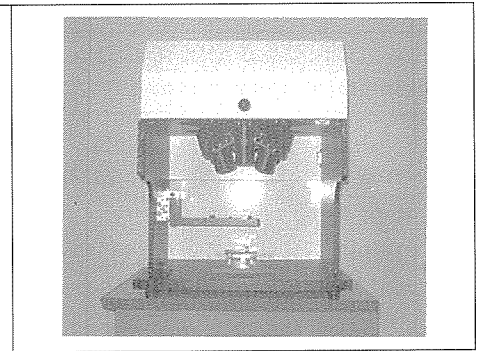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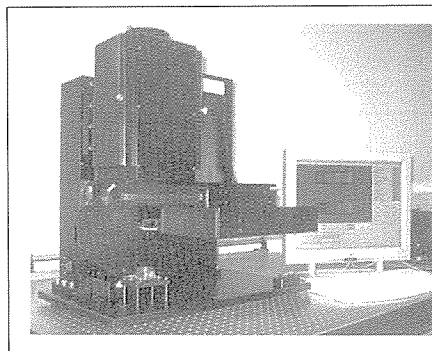
이즈미디어는 올해 매출목표를 지난해보다 상향해서 잡았었는데 2006년이 저물러면 아직 2달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간평가 결과, 이미 올해 목표량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성철 사장은 “해외에 나가 우리의 제품을 홍보하는 기회도 여러 번 가졌으나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제품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은 한번도 접하지 못했다”며 기술력에서 큰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은 보다 높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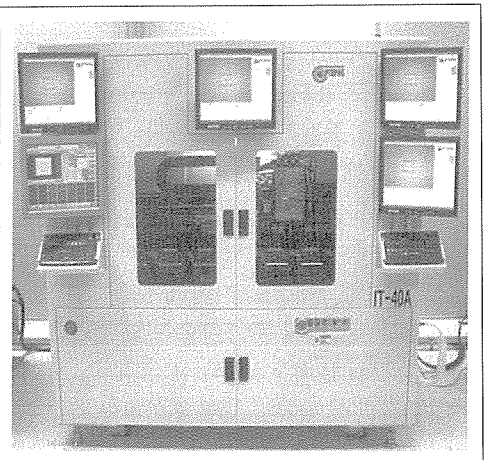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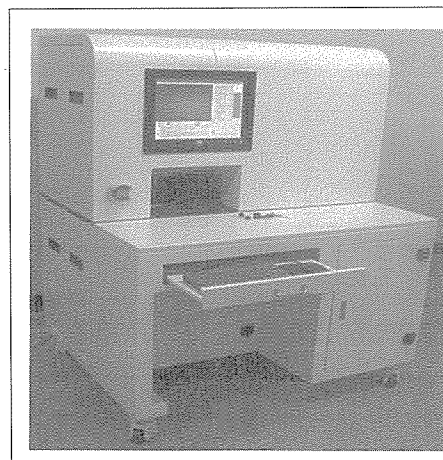
며 “고객이 100%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 기반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amera Link 방식의 고속 Interface를 이용한 4-Channel이 지원되는 특수목적의 고해상도 산업용 카메라



▶Auto Focus 모듈 검사기와 Infinite Focus 검사기



▶이즈미디어의 주력제품인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왼쪽이 Semi-Auto 검사기, 오른쪽이 Full-Auto 검사기)